

“옛 비문 통해 선종사 본다”

역사연구회, 5년만에 '나말여초금석문'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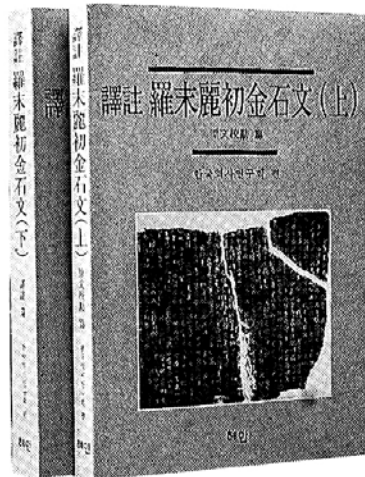
한국 고·중세사를 연구할 때 금석문(金石文)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의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동시에 당시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박종기 국민대교수·국사학)가 펴낸 《역주(譯註) 나말여초금석문》(전 2권·해안 판)은 역사학계에서 이 시기 금석문 연구 작업으로 얻은 첫 성과로서 금석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깊이있는 역사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표와 '나말여초 선종 법계도'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현지답사를 통해 비문글자를 직접 확인하고, 탁본도 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두 구해 대조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고미현(高美顯)에 있던 서원종(西院宗) 명문은 기존의 관독문 수록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원인이 탁본한 종이 동근 종의 표면에 등글게 말려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데서

현지답사 위주 30편 실어 탑·불상등 銘文도 다뤄

상권 '원문교감편', 하권 '역주'로 구성된 이 책은 주로 신라통일기 말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선종 승려들의 업적을 적어놓은 비문을 교감하고 우리말 주석을 붙여놓아 누구나 쉽게 선종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탑, 종, 불상 등의 명문(銘文)도 추가했으며 유교 및, 도교 등 다양한 역사적 내용을 담은 금석문도 함께 수록, 30여개의 금석문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록으로 '나말여초 선종사

생각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역사 연구자들이 금석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있는 교감과 연구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나온 이 책은 역사연구회 나말여초연구반이 1990년 초부터 진행해 온 공동작업의 결실. 김영미교수(이대 사학) 등 11명의 연구반원이 금석문마다 발제자를 분담한 후 3차례 걸친 철저한 공동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역사연구회의 이번 역주서는 한국고대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2·3권,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펴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권 및 고려권 1·2·3권에 이은 세번째 성과물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 화제

성우스님 '범망경...' 펴내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인 성우스님이 송광사강원교재로 사용한 《범망경 보살심지계품 강의초안》을 발간했다.



이 《범망경 보살계본》 주석은 승강스님의 《범망경술기》, 의적스님의 《범망경계본소》,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를 각각 발췌, 해석을 달고 강의한 것. 토방, 1만원.

민족사, 팔리삼장CD롬 보급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태국의 달마카야 재단이 제작한 팔리삼장 CD-ROM을 영국의 팔리삼장학회(PTS)와의 협약에 제작했으며, 일본 등지에서도 이미 보급되고 있다. 값 15만원.



팔리 삼장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이 팔리삼장 CD-ROM은 영국의 팔리삼장학회(PTS)와의 협약에 제작했으며, 일본 등지에서도 이미 보급되고 있다. 값 15만원.

(02)732-2403-4

지구촌 '종교분쟁지도' 나와

지구촌 곳곳에서 분출되는 종교분쟁의 다양한 양상을 해당 지역 지도와 함께 다룬 종교분쟁 보고서인 《종교분쟁지도》(자작나무 펴)가 나왔다.

에이즈, 환경과, 인구폭발과 함께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종교의 대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이시카와 준이치(日 시사통신사 방북지국장)는 "새로운 종교는 모두 앞서의 종교를 변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불교도들의 반정부 지하투쟁, 힌두교가 양성하는 인도의 악순환, 끊임없는 유교의 종교분쟁, 종교분쟁의 대명사인 북아일랜드 분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8천원)

명사주천



자타카

내가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학창시절부터 심취해 있던 기독교사상이 내 시의 바탕에 깔려 나온 것들이 시집 4권 분량이었고, 최근에 낸 시집 《홀로서기》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교에 관한 책들 중 나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상식 정도 만으로 쉽게 이해되어 지는 책은 많지 않았다.

예수의 일대기 등으로 엮어 놓은 기독교 성경에 비해, 지루하고 어려운 불경책들을 보며-읽던 날이 울컥했지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다.

내가 이책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내가 기다리던 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너무 반가웠다. 현재 조선일보 편집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희건씨가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을 소설 형태로 아니라

커서 배우는 어떤 교육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떤 종교적 모임에 가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하나이듯이 그 하느님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회교의 알라신 그리고 우리전통의 조물주까지 모두 하나의 같은 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서정운 (시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법제시 동심에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

우화형태로 담담하게 엮어 놓았다. 우화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우화라든가, 또 아라비안나이트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자타카》(문화수첩 펴)라는 말을 읽었을 때 나도 금방 이 책에 빠져들었다.

부처님이 마야부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윤회의 고리들을 연결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풀어주었다. 어려운 경전들보다 이해 한권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만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는 곧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아니 손자들이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 이 책을 펴서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신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인간에게 단편적으로 비칠 수 있고, 그 단편만 보고 인간들이 신의 명칭을 다르게 한 결과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은 반대를 하고, 종교에서 볼 때 열성적이지 못한 사람은 찬성을 하였다.

나는 종교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종교에 얽매었다면 과연 종교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리면서 볼 때 《자타카》라는 이 책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으며, 또한 다음 세상에 태어날기 위한 자료로서 이승의 업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맑은 샘물을 마시는 기본으로 《자타카》를 읽었다.

현구집 정원스님 편저

경전·선어록 등 玄句모아 사경 편집

정원스님(현안 평심사 주지)이 편역한 《현구집(玄句集)》은 스님이 2십여년간 공부한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글귀(玄句)'들을 직접 사경(寫經)·편집하여 번역한 문집이다. 그래서 다른 일반 경전 번역서와는 달리 수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불·조사들의 경구가 빠짐없이 들어있다.



또한 4·6배만 705쪽 분량의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 전체적인 교화의 흐름 파악과 함께 실제적인 수행지침서로도 적합하다. 한글자 한글자 뜻을 새기며 정성스럽게 쓴 단아한 글자체는 읽기에 부담이 없다.

상권에는 경전에 나타난 현구 43편을, 중권에는 논·소 및 조사어록에서 63편을, 하권에는 의율만한 송(頌)을 운율별로 모아 엮었다. (대홍기획 3만5천원)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박영재 지음

재가자 참선수행 체험 생생히 서술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는 서경대 박영재교수(물리학)가 재가자로서 선가에 입문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입문후의 생생한 체험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 재가자들의 참선수행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생생한 입문서다.



특히 '禪과 물리학' 편에서는 선과 물리학의 상호관계를 통해 선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두'와 '선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두', 그리고 '선 수행의 필독서' 등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읽어가면서 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저자는 "참선을 통해 길러진 아랫배의 힘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부딪치는 어려움을 화두를 풀어내듯이 투과했고, 참선을 통해 길러진 부드러운 심성으로 인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불광 7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품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불교인론	조계종포럼	조계종
4	생황학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 바 지
6	그 마음을 버려라	김 재 용	웅 화
7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8	새들이 떠나갈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9	밀린다공하	동 봉	홍 법 원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 (02)737-0695

새로나온 책...

▲전남의 전통사찰 1(사찰문화연구원 지음)=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맥을 찾아가는 전통사찰총서 제6권. 예향과 문화의 고장 전남도의 46개 사찰을 답사했다. 각 사찰의 위치와 창건, 연혁, 창건주를 비롯 주요인물과 성보문화재 등을 빠짐없이 소개했다. 사찰에 갖는 정신사적인 의미도 빠뜨리지 않았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2천원)

▲중국 항공공법(텐투이성 지음)=항공(香功)은 중국 선종



과 밀교의 정수를 섭취하여 성립된 기공법으로 중국에서 1천여년간 전래되어 왔다. 1988년 텐투이성대사가 공개한 이 공법은 수련을 통해 병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림 9천원)



▲영혼의 X파일 1(차길진 지음)=(일간 스포츠)에 연재한 '영혼의 X파일'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차길진법사(후암정사)가 천도재를 지내면서 겪었던 영혼들과의 사연을 담고 있다. 선대의 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

야 하는 원인, 그리고 내가 존 재하는 이유 등을 밝힌다. (이성 6천5백원)

▲한국불교전설 99(최정희 엮음)=10여년간 스테디블서로 자리매김하면서 9관제에 표지를 바꾸고 활자를 키워 수정판을 냈다. 이 땅의 불교전설은 인과응보와 보시공덕, 구법보살(求法菩薩)의 자비행, 효선(孝善)의 의미를 담아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고승의 법문보다 설득력이 강한 전설을 도별로 엮었다. (우리 8천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깨달음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맑은 바, 한 척의 어둠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현대불교신문은 정간 2주년 기념 특집

조계종 종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여시아문의 마음 읽는 책 / 여시아문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읽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삼과 수행의 등반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